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6년 5월

“올해 단경기 쌀가격 오를 전망”

쌀관측 시범사업으로 실시, 봄호 발간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독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관측보를 발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5월 4일 쌀관측 봄호를 발간했다.

이번 관측결과는 4월에 농가, 농협·곡협·소비자대형할인매장 등의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통계청 등의 생산·소비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지 조곡 가격 약상승 추세

올해 쌀 가격 동향은 작년 수확기 이후 산지 조곡 가격은 약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세를 보이던 정곡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경기, 강원 산지 조곡 가격 하락이 큰 반면, 남부지역은 상승하였고, 경기·강원은 작년 수확기 가격이 수급실세보다 높게 형성된 반면, 남부지역은 낮게 형성되었다. 그리고 산지 정곡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현재 산지 민간유통업체 재고량은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하였다. 그리고 정부 재고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9%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량 중 국내산은 56% 증가한 114만톤, 수입미는 49% 적은 28만 톤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쌀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단경기 수급 및 가격 전망은 작년 생산감소와 정부매입 증가로 인하여 2006 양곡년도의 민간부문 공급량은 전년보다 25만톤(6.1%)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입 쌀 공급분 2만 3천톤을 감안하더라도 5

월 이후의 쌀 공급량은 전년동기보다 3.4%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차례 쌀관측보 발간

금년 논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대비 0.7% 줄어든 96만ha(06.3 관측원 조사) 되었고, 조생종은 3.8% 감소한 12만 3천 ha, 중만생종은 0.3% 감소한 84만 8천 ha(발벼 1만ha포함, 06.4 관측센터 조사)로 나타났다.

우리 연구원은 2007년부터 쌀을 정구 관측품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여 4차례 분기별 쌀관측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지난 3월부터 채소 관측월보와 축산관측월보의 편집을 새롭게 하고 갈라로 인쇄하여 독자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내원



이종오 연구회 이사장이 5월 3일 연구원을 방문, 향후 연구회 운영 방향을 밝혔다.

지난 5월 3일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이종오 이사장은 오내원 기획조정실장

으로부터 연구원의 운영현황을 보고 받은 뒤, “FTA, DDA 등 대외협상에 있어서 농업 부문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말하며, 제 몫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이 이사장은 “앞으로 연구원이 자율적으로 경영하여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연구회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 핵심은 주민 참여”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워크숍 개최



새국토연구협의회는 5월 8일 연구원에서 ‘살고 싶은 국토’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최정섭 원장)는 5월 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살고 싶은 국토’라는 주제로 2006년도 워크숍을 개최했다.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시민단체, 연구원, 학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이다.

살고 싶은 국토 연구 지속 추진

개회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올해 새국토연구협의회는 활동 주제를 ‘살고 싶은 국토’로 정했다”고 밝히며,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할 포럼의 세부 주제를 선정해 구체적으로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조발제자인 강병기 도시연대 대표는 ‘살고 싶은 삶터 만들기’와 주민 참여의 의의 및 과제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삶터에 대해 ‘살고 싶다’고 느끼며 판단하고 평가하는 주체는 행정이나 전문가가 아니라 바로 주민”임을 강조하며, “삶터 만들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라고 발표했다.

첫 주제 발표자인 진영환 한국지역학회 회장은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란 무엇인가’란 제목의 발표에서 “시민과 지방 주도형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 시민사회 등 3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담장 허물기 운동을 주도했던 김경민 대구 YMCA 쉼터 소장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와 주민 참여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성 시가지 재생 프로

램이 열려 농촌을 망라한 국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활동가, 학계 대표 등의 토론회자들이 참가하여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새국토연구협의회에서 진행할 세부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향후 추진할 사업과 과제 논의

특히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는 주민 참여가 핵심이 되는 작은 생활문화운동의 성격이 강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내용적으로 건축, 도시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등의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국토속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농촌의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이 강조되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들기가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어 주목을 끌었다.

이번 워크숍은 새국토연구협의회가 올해 한해 진행할 포럼 및 주요 사업의 세부 주제를 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올해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세부 주제별로 4차례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를 주제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도 실행할 예정이다.

이어 권용우 국토지리학회장의 사회로 토

하는 농촌의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함이 강조되었다. 한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만들기가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어 주목을 끌었다.

이번 워크숍은 새국토연구협의회가 올해 한해 진행할 포럼 및 주요 사업의 세부 주제를 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올해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세부 주제별로 4차례의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살고 싶은 국토 만들기를 주제로 대학원생 논문공모전도 실행할 예정이다.

농정속보 2권 발간

우리 연구원은 최근 친환경 농업과 유기농업과 환율하락을 주제로한 2권의 농정연구속보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내외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및 인증실태’ 속보에서 김창길 연구위원과 김태영 연구원은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태를 토대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의 시사점을 밝혔다.

또한 ‘유기농업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속보를 통해 김병률 연구위원, 김배성 부연구위원, 조영수 전문연구원, 이용호 연구원은 유기농업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환율하락이 농산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했다.

KREI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구축

연구원은 각종 연구결과와 농업정보의 단방향 서비스를 고객중심의 쌍방향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5월 초 고객관계관리시스템(CRM) 구축에 들어가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고객최우선경영 실천 일환으로 지난해 고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고객정보 관리, 웹진제작 발송, 설문조사, 고객평가를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피드백시스템으로 청와대와 농림부 등에서는 정책고객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연구기관에서는 드물게 도입하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원이 확보하고 있는 홈페이지 회원과 도서회원 등 3만여 온라인 고객에 대한 연구정보 서비스의

열람자 이용통계와 댓글 및 추천 기능을 통해 고객 특성별 선호정보와 요구 파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각종 연구활동 및 연구정보를 신속히 매체로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시의성이 강화되며, 온라인 조사시스템을 통해 상시적으로 고객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

연구원은 이번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구축과 병행해 연구정보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고객 온라인정보 확충 작업을 6월중에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온라인회원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앞으로 연구원 CRM에 고객들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 각종 온라인 정보를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다.

‘한국농업, 희망은 있는가?’ KREI세미나



정승 국장을 초청해 ‘한국농업, 희망은 있는가’란 주제로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5월 16일 중회의실에서 농림부 정승 농업구조정책국장을 초청해 KREI세미나를 개최했다.

정 국장은 이날 ‘한국농업, 희망은 있는가?’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농업·농촌 부문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계는 물론 비농업계도 투자에 비해 성과가 낮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말문을 열어, “이는 농정을 잘 못 펴기 때문인지 아니면 농정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국장은 “다산 선생이 주장한 편농(便農), 이농(利農), 후농(厚農)을 토대로 살펴볼 때 지난 10년의 정책은 농업여건 조성(便農)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농업·농촌의 투자로 인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값싼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받게 되었고, 가구원수 1인당 농가소득도 도시가구 소득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이처럼 농업 부문이 발전했으나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이 희망이 없다는 자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하며, “자긍심을 갖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우리 농업의 희망을 찾는데 농업인, 정부, 학계가 하나가 되어 노력하자”고 발표했다. 이어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 희망 찾는 토론을 하였다.

정우회, 산악회 춘계행사 가져

정우회는 5월 20일 연구원 테니스장에서 춘계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A조와 B조로 나눠 대회를 열어 A조 우

승은 최지현 선임연구위원과 윤여홍 주임기능원 조가, 준우승은 박성재 선임연구위원, 김병률 연구위원 조가, B조 우승은 김현중, 윤종열 연구원 조가, 준우승은 이

병훈, 지인배 전문연구원 조가 각각 차지했다. 테니스대회를 마치고 신입회장에 김광진 선임관리원을 선출했다.

산악회는 5월 26일과 27일 설악산 공룡능선을 타는 춘계산행을 가졌다.

춘계산행에는 12명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우중에 설악산 신흥사를 출발, 비선대, 마등령, 공룡능선, 비선대를 거쳐 하산하는 코스로 산행을 하여 체력과 친목을 다지는 추억의 산행이 되었다.

관측센터, 월레워크숍 열어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지난달에 이어 5월에는 15일 본관 4층 회의실에서 월레워크숍을 열어 박미성 연구원이 ‘가격 신축성 함수(사과, 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복합생활공간 연구결과세미나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 개발’ 결과세미나가 5월 17일과 18일 한국농촌공사에서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자들을 비롯 자문위원과 발주처 등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농경토론회 개최

‘농촌정책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의 유용성과 한계’라는 제목으로 5월 30일 중회의실에서 농경토론회를 가져, 김정섭 박사가 발표한 뒤 토론했다.

소이젠 등 3개 벤처 농기업 졸업



소이젠 등 3개 벤처농기업 졸업식과 입주업체 회의를 5월 17일 가졌다.

연구원 부설 벤처농기업창업보육센터는 3년 동안 보육 받고 졸업하는 소이젠 등 3개 업체 졸업식과 입주업체 협의회를 5월 17일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벤처농기업 졸업식에서 최정섭 원장은 이날 졸업업체에게 졸업증을 전달하고 더욱 큰 발전 있길 당부했다.

이번에 졸업한 업체는 생대두를 가공하는 「소이젠(주)」과 농촌마을가꾸기 서비스 컨설팅을 하는 「지역활성화네트」, 쌀

생산이력추적시스템개발업체인 「신기술마켓넷」이 보육을 마치고 졸업했다.

세 업체가 졸업함에 따라 흑색, 유색, 현미를 생산하여 유통하는 「진도정미소 영농조합법인」과 닭고기 및 농축산물 유통

업체인 「(주) 메리트무역」, 유용곤충을 이용한 건강 기능성식품 개발 업체인 「BIT 영농조합법인」이 입주하여 3년간 보육을 받게 되었다.

이날 연구원 입주업체에서 생산 포장하여 유통하는 두부, 유색미, 건강식품 등을 전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5월 월레 입주업체 협의회를 개최하여 벤처 보육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김 병 루 연구위원

2003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3년 연평균 배럴당 26.8달러(이하 두바이유 기준)에서 2006년 4월 평균 64.2달러로 무려 140% 상승하였다. 국제 원유가격은 최근 이란 핵문제와 볼리비아의 에너지자원 국유화 조치 선언 등으로 다시 배럴당 68.3달러(5월 2일)로 폭등,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바 있다.

유가상승, 시설농 대책 마련 절실

이와 같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요인으로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이란의 핵문제, OPEC 산유국들의 생산여력 감소 등 산유국들의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와 중국, 미국 등 거대 경제권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세계적인 원유수요의 증가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환율은 2001년 1,291원이던 대미 환율(원/달러)이 2006년 5월초 931원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의 순매도와 맞물려 달러 매수 물량이 증가하면서 2006년 5월 23일 현재 950원까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대미 환율은 2005년 대비 7.8% 가량 하락한 수준이다. 최근 국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 강세,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예상과 유로 및 일본의 금리조정으로 인한 금리 차 축소,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 등이 최근 환율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 원유가격 상승은 국내 유가상승으로 이어져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원예농가의 온실가온비용과 농기계 동력비용을 높여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투입재가격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 특히 영농광열비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영농광열비가 많이 드는 시설작물의 경우 10a당 경영비 중 영농광열비의 비중이 26%에 달

해 식량작물, 과수, 노지채소, 축산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일 경우 시설작물경영비(10a당)는 2004년 대비 15% 상승하고 소득은 13%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연평균 유가가 70달러로 상승할 경우 시설작물 경영비는 2004년 대비 21% 증가하고 소득은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유 가격이 80달러로 상승할 경우 경영비는 27% 증가하며, 소득은 22%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환율하락, 수출입 대책 시급

한편 대미환율, 대일환율 하락은 농산물 수출에 큰 영향을 미쳐 수출 감소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재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환위험 헤지 능력이 취약한 농산물 수출기업들의 수출채산성 급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품목별로는 채소, 화훼, 과실 등 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줄었으며, 수출대상국별로는 신선채소, 과일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급감하였다.

2006년 3월까지 채소, 과실, 화훼 등 신선 농산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나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화훼는 37.4%나 급감하였다. 또한, 환율하락은 수입가격을 낮춰 수입확대를 유도해 급격한 수입량 확대가 예상되므로, 수입물량 증대에 따른 검역 및 관리 대책 마련도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환율이 달러당 연평균 990원에서 950원으로 하락할 경우 대중국 농산물 수입량은 약 10%, 축산물은 5%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대미, 대일 농산물 수출은 약 4~5% 감소, 축산물은 약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당 환율이 930원

으로 하락하면 대중 농산물 수입은 15%, 축산물 수입은 7% 증가하며, 대미, 대일 수출은 농산물이 약 6~7%, 축산물이 약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고 수출농 대책 세워야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유가가 동반 상승, 영농광열비 비중이 가장 높은 시설작물의 소득감소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농가에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류를 사용하는 보일러 사용을 줄이는 작형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시설농가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유가상승과 민감하게 연동되지 않도록 면세유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에너지 절감형 온실과 축사 등의 개발 보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05년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76억 9천만 달러에 달하였다. 올해는 지속적인 환율하락에 따라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산물 수출기업이 대부분 영세하고 환위험 헤지 능력이 취약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우리 농업의 전략적인 수출증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율하락에 따른 농산물 수출기업들의 수출채산성 저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고, 수출전문단지, 수출업체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시설채소와 화훼 등 시설작물은 자본기술집약형 첨단농업분야로 우리농업이 추구하고자 할 분야이자 수출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해야 하지만, 최근 유가 급등에 의한 경영비부담 가중, 환율하락에 의한 수출채산성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특별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

권 오 복 연구위원

지난 5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통상장관회의에서 태국을 제외한 양측의 통상장관들은 상품무역협정 다시 말하면 관세인하계획에 대해 합의를 했다. 상품무역협정이 FTA 핵심이라는 점에서 아세안과의 FTA가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서비스 및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은 올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타결된 상품무역협정은 올 하반기에 국회비준을 얻으면 2007년부터 발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아세안 FTA 2007년 발효

합의된 관세인하계획에는 수입액 기준 90%(HS 6단위 기준 4,971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관세철폐품목으로 분류하여 FTA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나머지 10%는 이행기간 중 관세가 일정 수준 인하되거나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민감품목이다.

이중 수입액 기준 7%는 2016년까지 관세를 0~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나머지 3%(품목수 HS 6단위 기준 183개)는 초민감 품목으로서 현행관세가 유지되거나 일정 비율의 관세만 인하되는 품목들이다. 초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① 9년간 관세를 50%P 수준으로 감축(A 유형), ② 10년간 50% 감축(B 유형), ③ 10년간 20% 감축(C 유형), ④ 일정 물량의 관세 인하(TRQ) (D 유형), ⑤ 현행관세유지(E 유형) 등 5가지의 양허방식이 적용된다.

2015년까지 관세를 50%P 이하로 감축해야 하는 품목수는 HS 6단위 기준 치즈, 사과, 배, 오렌지 등 5개 품목이다. 그러나 이들 품목의 관세가 50% 이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것과 같다. 2016년까지 현행관세 수준에서 20%를 감축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

기(기타), 돼지고기(기타), 닭고기, 오리고기, 낙농품 등 117개(HS 6단위 기준)이다. 2016년까지 현행관세에서 50% 인하해야 하는 품목은 맥주보리, 겉보리, 쌀보리 등 23개 품목이다.

현행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TRQ를 제공하는 품목은 강낭콩, 매니옥, 매니옥전분 등 3개 품목이다. 현행관세유지, 즉 양허대상 제외 품목은 쌀을 비롯하여 고추, 마늘, 양파, 녹차, 쇠고기,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 파인애플, 바나나, 감귤 등 35개 품목이다.

이번 아세안과의 FTA에서 40개 품목(HS 6단위 기준 전체 농산물 681개 품목 중 5.9%에 해당)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전체 농산물 중 27.5%(DDA 이후 논의 대상 품목 포함)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한·칠레 FTA보다는 적지만 주요 민감품목이 거의 포함되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당초 아세안과 FTA를 추진하면서 쌀, 닭고기, 열대과일이 우려가 컸던 품목들이었는데 이들이 모두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쌀, 주요 민감농산물 양허 대상 제외

양허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쌀을 비롯하여 주요 양념채소, 과일, 축산물이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에 따른 국내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단기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한편 중국 등 아세안 인근 국가로부터의 우회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도 엄격하게 마련되었다. 육류, 화훼류, 양념류, 채소류, 과일류, 곡물류 등 신선 농산물은 아세안 역내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농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완전 생산기준을 따랐다.

주로 가공식품인 15류~24류에 대해서는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

다. 04류(낙농제품)과 14류(대나무 관련 제품 등)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 또는 부가가치 45% 기준이 채택되었다.

농업의 민감성 충분히 반영

우유, 요구르트, 치즈, 햄 등 일부 낙농품 및 육가공품, 조제식료품 등은 제3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경우 부가가치가 최소한 40% 이상 충분히 발생하면 원산지를 인정하고, 부가가치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으면 원산지로서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기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아세안측이 주장하는 원산지 기준 일반원칙을 수용하되, 참기름, 고추장, 김치, 인삼·인삼가공품 등 전통 식품은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수출시 정부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토록 하여 중국, 인도, 호주 등 제3국산 농산물이 아세안을 경유해 우회 수입되는 경우 관세감축이나 관세철폐의 이득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에 아세안과 FTA를 체결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4개국, 아세안 9개국 등 1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셈이다. 태국이 국내 정치 문제 등으로 상품무역협정에서 빠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전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아세안과의 FTA에서도 농업부문의 민감성이 많이 반영된 협상이라고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고, 2006년 6월초부터는 미국과 본격적인 FTA 협상을 앞두고 있다.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인데, 한·아세안 FTA에서와 같이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계 곡물, 2006/07년도 재고량 대폭 감소 전망

최근 세계 곡물수급 동향을 보면 우리의 관심을 끄는 현상이 몇가지 있다. 예를 들면 2006/07 곡물년도의 세계 재고량이 대폭 감소하고, 수요면에서 차세대 에너지로서의 에탄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또 가격면에서는 쌀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재고율은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

먼저, 미국 농업부(USDA)가 5월 12일 발표한 2006/07 곡물년도의 전망치를 보면, 곡물의 세계 재고율은 전년도 18.9%에서 15.7%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 초반 세계 곡물위기 시의 재고율 15.5%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재고가 감소하는 것은 미국의 옥수수 수급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대비 5.1% 감소하였으나 소비는 사료용 수요와 에탄올 수요 등의 증가로 인해 6.2% 증가한 결과 옥수수 재고율은 전년도 20.2%에서 9.8%로 급감하고 있다.

특히 금년 5월초까지 미국 중서부지역에서 비가 잦아서 옥수수 식부면적이 감소한 것이 내년도 생산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수요면에서는 중국과 인도에서 곡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세계 재고를 감소시키고 있다. 또 석유가격 상승과 환경오염 방지 등과 관련하여 옥수수에서 생산되는 바이오 에탄올이 가솔린 대체에너지로서 수요가 급증하는 동시에 대두유와 유채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에탄올의 주요 생산국은 브라질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인도 등이다. 브라질과 인도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나 미국과 중국은 옥수수를 원료로 한다. 특히 세계 최대의 에탄올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면서 세계 사탕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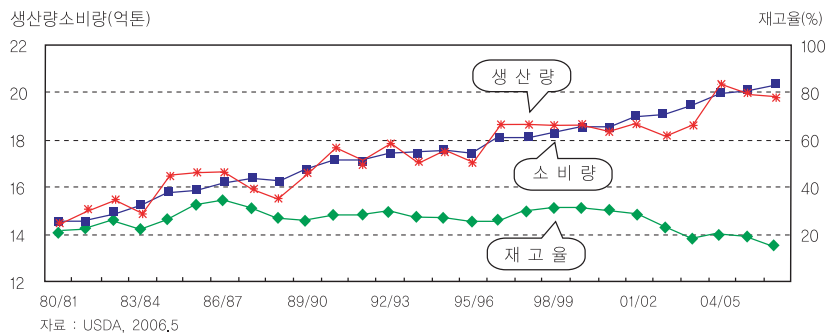
브라질은 에탄올 수요증가를 겨냥하여 사탕수수로부터 에탄올과 사탕을 동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가격에 따라 선택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전통적인 사료용 이외에 에너지용이나 식용유 등의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수요가 세계 곡물수급에 영향을 미쳐서 재고 감소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70년대 초반 이후 최저 수준의 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쌀은 2000년 이후 소비가 생산을 상회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2006/07년도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4억

1,150만톤(정곡)을 예상하고 있다. 주요 생산국인 중국, 인도 등에서 약간의 증산이 예상된다. 소비량은 1.2% 증가한 4억 1,810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소비증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인도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다. 재고율은 2000년 38.3%에서 14.6%로 감소하고 있다.

세계 쌀 생산은 1999년 4억 880만톤을 최고로 하여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제약으로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쌀 가격은 태국산 장립종의 경우 톤당 종전의 190달러 수준에서 2004년초

세계 곡물수급 및 재고율 추이



부터 급등하기 시작, 2006년 2월 300달러를 상회한 후 5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바이오 에탄올 등 신규 수요 증가

세계 곡물 수급은 2000/01년 이후 4년 연속 생산이 소비를 하회한 이후 2004/05년 일시적으로 생산이 소비를 능가하였다. 이후 2년 연속 소비가 생산을 능가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요에 생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원래 농업생산이란 기상이변과 같은 자연조건의 제약을 강하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생산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어 수급사정에 신속하게 반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 무역은 기본적으로 우선 국내소비에 충당되고 남은 것은 수출되기 때문에 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량의 비율은 극히 낮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는 반면에 수입은 다수의 국가로 확대되는 '과점시장'이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수급사정이나 시장구조를 고려할 때 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수급에 관한 정보수집, 주요 수출국의 생산동향,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증가와 신규 수요동향에 대한 정확한 파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확보에 관심을 높여야 할 때이다. <김태곤 연구위원>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현황과 시사점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환경자원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은 농산물 시장개방화의 물결 속에 미래농업의 성장 동력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과 최근 소비자들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 이후 매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찍부터 유기농업을 육성해온 유럽과 북미 지역의 유기농산물 판매액이 2003년 기준 약 250억 달러(약 25조원)를 넘어져서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의 유기식품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일본의 유기농산물 소비 급증으로 해외인증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급증, 수입도 크게 늘어

우리나라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보면, 인증면적은 1999년 875ha에서 2005년 49,807ha로 매년 96% 증가, 인증량은 1999년 26,646톤에서 2005년 797,747톤으로 매년 76%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 급증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4% 수준이며, 특히 유기농산물 비중은 0.4% 정도로 매우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증유형별로는 1999년 이후 유기농산물의 증가세(연평균 46% 증가)에 비해 저농약농산물의 증가세(연평균 99%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2005년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가운데 유기농산물 비중은 8.5% 수준까지 줄어들고 저농약농산물 비중은 60%를 넘어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3년에 처음으로 수입 유기농산물을 인증한 이래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2005년말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2003년 2,327ha에서 32,187ha로 약 14배나 증가하여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6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기농산물의 수입량도 2005년 8,500톤으로 2003년에 비해 9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수입물량 중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83.2%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 크게 증가

중국의 녹색식품 생산현황을 보면, 2004년 기준 생산량 4,600만톤, 인증면적 596만ha, 소비액은 860억 위엔(약 1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수출액도 매년 약 50%씩 증가하여 2004년에

12.5억 달러(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중국 유기식품(AA등급)의 경우 2004년 기준 생산량 37.2만톤, 검사면적 146만ha로 2003년 대비 2배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유기식품의 중국 내 소비액도 35억 위엔(약 4.4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출액은 2.3억 달러(약 2천억원)로 2003년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기식품 인증면적이 146만ha로 우리나라 전체 농경지 면적의 80% 수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중국의 유기농산물 수출 잠재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은 국내인증이 2004년 47,429톤으로 2001년 대비 1.4배 정도 증가한 반면, 해외인증은 2004년 449,649톤으로 2001년 대비 4.8배 정도 증가하여, 해외인증이 국내인증 물량의 약 9.5배로 전체 유기농 인증물량의 90% 정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유기농산물뿐만 아니라 유기가공식품에 있어서도 해외인증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의 유기농산물 수입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 차별화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유기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0.4%에 불과하여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의 양적 증가에 비해 국제수준의 유기농산물 생산을 통한 질적인 성장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 주요국의 경우 소비자의 신뢰와 지속적인 소비증가에 힘입어 유기농산물의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내외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경우 외화획득을 위한 국가수출전략의 일환으로 녹색식품의 생산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친환경농가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한편 일본의 유기농산물 수입 증가는 우리나라 고품질 유기농산물의 대일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엄격한 인증관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이러한 수입 유기농산물의 위협에 대한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본 시장을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수출을 위한 중요한 기회요소로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김태영 연구원>

“연구원 혁신과 발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부서별 혁신 워크숍 5월 12일과 13일 개최



농업구조센터와 기초실은 백령도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령도에서 ‘연구부서와 지원부서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연구부서와 지원부서 모두 개인의 이익보다는 연구원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

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농촌 체험도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번 워크숍은 각 부서가 자율적으로 부서 및 조직의 경영혁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기획되어서 부서별로 주제를 정해 의견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농산업경제연구센터는 전북 부안에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 만들기’란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부서원들은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연구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직장동호회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촌발전연구센터는 ‘우리센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우리 센터,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란 주제로 센터발전 방향에 대해 3개 팀으로 토론한 뒤 나뉜 의견을 한데 모았다. 센터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하며, 젊은 인력 수급과 육성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연구원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남이섬에서 센터 발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면에서 연구직의 정규직화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측사업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과 평가제도 등 센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업구조연구센터와 기획조정실은 백

령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고, 농촌 체험도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국제농업연구센터는 정선에서 ‘입사시와 현재 우리의 모습’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대체로 입사할 때에 가졌던 기대가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만족한 가운데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으나 무한경쟁, 외부 용역 수주, 다양한 잡무 등으로 연구원 생활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정책연구실과 부원장실은 도봉산 산행을 한 뒤 향후 산림정책연구 관련 논의를 하였다. 지방화에 따른 지역산림계획 수립과 산촌개발 계획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연구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실과 자료정보지원실은 보성과 거제에서 ‘구성원 간의 화합과 조직문화 개선 및 경영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워크숍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연구원 업무혁신을 위해서는 팀과 실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가 중요하며 향후 추진 계획인 지원부서 조직 개편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 연구진 동정

△정명채 선임연구위원은 5월 25일 코엑스전시관 장보고홀에서 열린 제13회 방제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정호 선임연구위원은 5월 9일 aT센터에서 농특위 주최로 열린 농업·농촌 기본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박시현, 송미령 연구위원은 5월 2일 롯데호텔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박현태 연구위원은 5월 19일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에서 열린 2006 한국화훼산업육성협회 춘계심포지엄에서 ‘화훼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김태곤 연구위원은 5월 9일 농업연수원에서 ‘외국의 직접지불제도’란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정민국 연구위원은 5월 9일 안성교육원에서 열린 2006년 축산컨설팅트 기본교육에서 강의를 했다.

제인 콤스 뉴질랜드 대사, 업무 협력 논의



제인 콤스 대사가 내원, 최정섭 원장과 농업부문 연구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섭 원장을 만나 뉴질랜드 정부와 우리 연구원 간의 농업분야의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최 원장과 제인 콤스 대사는 뉴질랜드 정부와 우리 연구원 간에 전문인력 교류와 향후 FTA 관련 농업부문

제인 콤스 (Jane Coombs) 뉴질랜드 대사가 5월 10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 최정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 추진 등 상호 연구 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